

#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 우수특구 선정

### 일자리 창출·투자유치 등서 양호한 성과 창출 '전북·대구·경북' 3개 특구 우수 평가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지난 2019년 7월과 11월에 지정된 1·2차 규제자유특구(14개)를 대상으로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특구 운영성과평가'는 지역특구법 제83조(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근거해 매년 특구의 성과달성도, 파급효과, 규제특례 활용실적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이번 평가는 2019년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두 번째로 이뤄진 법정 평가이다.

중기부는 2020년 12월에 마련된 성과평가 추진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자체평가를 진행토록 했으며, 올해 4월 28일부터 29일 양일간에 걸쳐 지자체의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종합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도출했다.

이번 종합평가 과정에서 중기부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5명)를 별도로 신설해 특구사업자의 신규고용, 투자유치 등 계량실적을 사전에 검증하

는 등 평가의 신뢰도를 확보했다.

이들간 진행된 평가에서 평가위원회는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실적과 그간의 실적결과를 주로 평가하고, 14개 특구의 실적 종료 시기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실증사업의 안전성 입증 등 규제정비 근거 마련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결과, 지역경제 기여효과가 큰 전북(친환경 자동차), 안정적으로 실증을 추진한 대구(스마트웬니스), 활발한 투자유치가 돋보이는 경북(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가 우수 평가를 받았다.

한편, 실증착수가 당초 계획에 비해 지연되는 등 성과달성도가 미비한 전남(중전압 직류송배전산업) 특구는 미흡 평가를 받았다.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는 14개 평가대상 특구 중 가장 많은 148명을 신규로 고용해 지엠(GM) 철수 이후 침체에 빠진 지역의 일자리 회복에 기여하고, 초소형 전기특장차의 배터리팩, 모터·감속기 등의 부품 국산화(목표

65% → 실적 70%)를 통해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의 기술력 향상과 산업활성화에 기여한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대구 스마트웬니스 특구는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를 구축하고 3차원(3D) 프린터를 활용해 인공관절, 두개골 성형재료 등 8개 품목 532개의 시제품을 생산하는 한편, 폐지방에서 인체유래 콜라겐을 생산해 이를 함유한 상처 치료용 피복재 개발기업에 공급하는 등 향후 사업화 가능성을 제고했다.

경북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는 GS건설(배터리 재활용 공장 설립, 1,000억원), 포스코케미칼(이차전지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 2,500억원) 등에서 총 5,455억원 규모의 투자(2019.12월~2020.12월)를 유치하고, 대·중소기업간 배터리 리사이클링 상생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포항지역이 유망산업인 배터리 재활용산업의 허브로 자리할 기반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운영성과평가 결과 2년 연

속 성과가 미흡한 특구는 특구지정 해제, 차기 신규특구 지정 배제 등의 패널티를 부여하고, 성과가 우수한 특구는 추가 재정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특구법에 따라 매년 시행하는 운영성과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에는 3·4차로 지정된 10개 특구를 포함한 24개 전체 특구를 대상으로 특구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매월 시행하는 정기·수시 점검 등을 연계해 평가제도가 규제자유특구사업 성과향상의 기반으로 작동하도록 할 계획이다.

권칠승 중기부장은 "1·2차 규제자유특구의 실적 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해당 특구사업 관련 규제법령 정비 등을 통한 특구안착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내년에 실증기간이 종료되는 3·4차 특구는 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현장 중심의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통해 짧은 실증기간 내에 원활하게 실증을 완료하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에너지 홈닥터사업” 신청하세요

### 전북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실현 위해 선착순 접수

전북도는 14개 시·군과 함께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취약계층 1,900가구(1억2,600만원)를 대상으로 '에너지 홈닥터사업'을 추진한다.

홈닥터 사업은 취약계층 가구의 난방비 부담완화, 난방시설에 대한 무상점검 및 수리 지원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등 에너지복지를 실현하는 정책이다.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노후 주거환경 거주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가구 등 사회적 소외계층이다. 신청은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신청에 따라 6월부터 11월까지 전문업체가 가정을 방문해 보일러를 무상점검·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이 전기,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에너지바우처 사업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연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유호상 기자

## 첨단소재부품 개발·사업화 탄력

### 전북도, 첨단나노소재부품 지원 공모 선정... 국비 50억원 확보

전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산업혁신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첨단나노소재부품 사업화 실증기반 고도화'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2025년까지 5년간 국비 50억원, 지방비 등 22억원 총 72억원을 투입해 나노소재기반 첨단전자부품 사업화를 위한 장비공정기술을 구축해 나노소재부품 사업화 실증체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 나노인프라를 고도화해 소재가공 특성평가 전자부품 제조까지 종합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전북나노기술집적센터가 수행한다.

한전연 전북나노기술집적센터는 국내 유일의 정부설립 소재·부품·장비 테스트베드인 국가나노인프라의 일원으로 고유의 산업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며, 보유 공정 및 장비를 이용해 소재·부품·장비 테스트베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전연은 나노랩 클린룸을 활용한 최첨단 장비 도입 및 기 구축 장비의

고도화를 통해 나노소재부품 실증 테스트 베드를 구축해 나노 중소기업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한다.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전자부품 실증을 위한 신규 장비구축 및 기 구축장비 개선을 위한 정비확충, ▲소재·부품 인프라 연계한 전자부품 공정 플랫폼 구축, ▲기술지도,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인증 등 기술 사업화 지원을 추진한다.

도는 고도화된 기반을 바탕으로 매년 10개사 이상의 지역중소기업에 사업화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으로, 오는 2030년이면 국내 나노기업 누적 매출 1,500억원, 누적 고용 창출 600명의 효과를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찬준 도 탄소융복합과장은 "첨단나노소재부품 사업화 실증기반 고도화사업을 통해 자동차용 센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초소형·초경량 전자부품, 고성능 조명소자, 5G통신용 부품 첨단 전자부품산업의 육성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도·진안군,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공모 선정 쾌거

전북도와 진안군이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처음 실시한 '2021년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5억원 확보했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서면(60%)·발표평가(40%) 등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2021년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대상지로 진안군(농어촌 과소화마을 스마트생활 물류 시범서비스 실증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진안군은 전국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도와 진안군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디지털 기술(주문 웹, 전자 결제, 무인택배함, 전기화물차 등)을 활용한 생활물류시스템을 도입해 농가에서 택배가 발송되지 않는 불편함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고령자가 대부분인 농가에서 직접 발송시까지 택배 물품을 가져와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 노령화 및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농산물 택배 판매로 소득이 증가하고, 택배 거점 수거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유호상 기자

## 제7대 전북노조, 도청 첫인상 청원경찰과 소통 간담회 가져

### 빈틈없는 모범 방역 추진 노고 격려·애로사항 청취

제7대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북노조, 송상재 위원장)은 20일 청사 방호와 안정을 책임지는 청원경찰과의 소통 간담회를 전북노조 사무실에서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발열 체크기 설치·운영 및 청사 방호에 고생하는 청원경찰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원경찰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도민과 조합원들이 출입하는 도청 곳곳에 발열 체크기를 설치·운영하며, 도청에서 방역이 풀리는 일이 없도록 24시간 빈틈없이 모범적인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청원경찰의 피로감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청 청원경찰이 요구하는 주요 부분은 ▲근무환경 개선, ▲안내데스크 시설보강, ▲당직실 및 청원경찰실 시설개선 등이다.



제7대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은 20일 청사 방호와 안정을 책임지는 청원경찰과의 소통 간담회를 전북노조 사무실에서 가졌다.

장태성 청경 대장은 "도청 청원경찰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노조에서 이렇게 관심을 두어 청경을 대표해 감사를 드린다"면서 "도청의 첫인상으로 많은 바 역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노조 송상재위원장은 "청원 경

찰분들은 우리 도청에서 도민, 조합원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우리 도의 얼굴과도 같은 중요한 존재로, 청원경찰이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함께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경남관광박람회서 전북 매력 홍보

전북도가 20일부터 22일까지 케이앤씨가 주관하고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개최되는 '2021 경남관광박람회'에 참가해 청정 관광지인 전북 알리기에 나선다.

도는 전북투어패스를 비롯해 14개 시·군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전북도 방문을 유도하고자 각종 이벤트 등 비접촉 체험행사를 운영한

다.

또한, 전북관광협회와 전북도가 공동으로 베트남 현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바이어 상담회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한국 속의 한국 전라북도'만의 매력을 알리고 관심을 끌어낸다는 전략이다.

특히, 인접 지역인 무주, 진안, 장수의 관광자원을 맞춤 홍보해 인근 관광객들이 전북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